

지역 매 아리

완주 농림지 돌발해충 공동방제 26일부터 6월 15일까지 실시

완주군이 최근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농림지를 중심으로 피해를 주고 있는 돌발해충의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공동방제에 나선다.

완주군은 오는 26일부터 6월 15일까지 돌발해충 공동방제 기간으로 지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산림녹지과, 농업기술센터, 읍·면별 공동방제단과 협업해 농경지와 산림지에 공동방제를 추진한다.

농경지와 주변 산림에는 광역방제기, 방제차량 등을 투입해 지상방제를 실시하는 동시에 산림지에 무인헬기 항공방제를 실시한다. 무인헬기 항공방제는 비봉면, 소양면 등 4개 읍·면 약 200ha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방제대상인 돌발해충은 갈색날개매미충, 꽃매미, 미국선녀벌레 등이다.

돌발해충은 나무수액을 흡즙해 가지를 고사시키고 분비물로 열매나 잎에 그을음을 일으켜 피해를 준다. 또한, 이동성이 좋아 산림과 농경지를 넘나들며 임산물과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있어 산림과 농경지를 동시에 방제를 추진해야 효과가 높다.

완주군 관계자는 "돌발해충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농경지와 인접 산림지에 대한 공동방제가 중요한 만큼 농가에서도 공동방제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시보건소, 건강걷기 운동 캠페인

김제시보건소(보건소장 김형희)는 오는 27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1시간) 축협 앞에서 시민의 건강증진향상과 운동실천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규칙적인 건강걷기 운동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걷기는 특별한 장비나 경제적 투자 없이도 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유산소 운동으로 운동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나 노약자, 임산부 등 누구나 할 수 있는 운동이다.

생활습관병 예방과 치료는 물론 체지방 감소에도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따로 준비해야 할 운동 기구도 없고 언제 어디서나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것이 걷기 운동이다.

퇴근길에 1~2 정류장 정도를 걸어가 는 것만으로도 운동이 될 수 있으며 미세먼지 차단 흡사 마스크를 홍보물로 제공한다.

김제시 보건소 관계자는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은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2~3회 이상 걷기 운동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양귀비 · 대마 파종 단속

김제시 보건소, 개화기 맞아 비닐하우스 등 이용 밀경작 사례 많아

김제시 보건소(소장 김형희)는 양귀비·대마 개화기(5~6월)를 맞아 오는 6월 말까지 양귀비·대마 파종 및 밀경작 단속을 실시한다.

김제시 보건소는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을 이용한 밀경작 사례가 많아 은폐된 장소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할 예정이다.

양귀비는 꽃이 아름다워서 볼레 관상용으로 기르거나 약재 혹은 양귀비술 제조용으로 키우기도 하나 이는 재배량에 관계없이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 게다가 직접 심은 게 아니고 자생한 양귀비를 내버려둔 경우라도 처벌될 수 있다.

현행 마약류 관리법에 의하면 양귀비, 대마 등을 밀경작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마약원료공급자로 취급되어 5



김제시 보건소는 오는 6월 말까지 양귀비·대마 파종 및 밀경작 단속을 실시한다.

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따라서 규제 대상인 양귀비를 '관상용 양귀비'로 잘못 알고 재배하는 경우가 없도록 이 둘의 구별을 분명히

해야 한다. 개양귀비(관상용)는 줄기와 꽃봉오리에 잔털이 있고 열매가 작으며 도토리 모양인 반면, 마약 성분이 있는 양귀비는 줄기와 꽃봉오리에 잔털이 없고 매끄러우며 열매가 크고 호박처럼 둥근 모양이다. 보건소에서는 관상용과 개양귀비를 혼동하고 재배하여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김제시 보건소 관계자는 "마약 성분이 함유된 양귀비가 집 주변에서 자생하고 있으면 뽑아서 제거해야 한다"며 "불법 재배 또는 자생하고 있는 양귀비·대마를 발견한 경우에는 국번 없이 1301번 또는 가까운 경찰서나 전주지방검찰청으로 신고해 달라"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지원으로 기술 익혔으니 보답해야죠”

압화 공예전문가 창업과정 수료생 압화 조명등 복지시설에 기부

완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직업훈련교육 수료생들이 직접 만든 압화 조명등을 복지시설에 기증해 훈훈함을 자아냈다.

23일 완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압화 공예전문가 창업과정에 참여한 20명에 대한 수료식을 열었다.

수료식에 맞춰 수료생들은 그동안 배운 기술을 바탕으로 압화 조명등 100개를 만들어 지역 아동 및 청소년센터에 전달했다.

강사로 활동한 신재승 우리꽃누를 대표로 힘을 보탤다. LED로 만들어

진 조명등은 100원 상당에 달한다.

신 대표는 "수료생들이 전폭적인 지원아래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주어진 만큼 이를 기부로 보답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며 "지역 아동들에게 전해진다는 사명감으로 열심히 작품활동에 임하는 수료생들을 보며 많은 자극을 받았고, 함께 하게 돼 영광스럽다"고 말했다.

수료식에 참석한 박성일 완주군수는 "수료생들의 마음 씀씀이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며 "모두가 바라는

일자리, 여성일자리 지원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활동으로 완주를 대표하는 공동체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완주새로일센터는 2019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5000여만원을 확보해 △생산제조품질검사원 양성과정 △압화 공예전문가 취·창업과정 △생활나눔 코디네이터 취·창업과정 △예비창업자를 위한 창업역량교육, 직업훈련교육 총 4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완주=이종복 기자

3.1운동 100주년 기념 ‘조국의 노래’

6월 8일 김제문화예술회관

김제문화예술회관에서 오는 6월 8일 오후 5시 3.1운동 100주년 기념 '조국의 노래' 음악회가 2019년도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사업으로 두 번째 공연 무대를 연다.

지난 5월 9일 전석 매진으로 레미제라블 갈라 콘서트를 성황리에 마친 전문예술법인(사)드림필이 시민들에게 다시 한번 감동의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이번공연은 남성 8인조로 이루어진 콤파레 그룹 T&B가 메기의

추억, 잊을 수 없는 사랑, 한계령의 연주곡을 통해 감동을 선사하며, 국악인 오정혜는 너영나영, 홀로 아리랑, 장터령의 한국 국악 민요를 선보인다.

3.1운동 100주년 기념 음악회는 역사를 재인식하고 조국의 해방을 위해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던 선조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자 준비했다.

관람권 예매는 오는 28일 오전 8시부터 김제문화예술회관 및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gimje.go.kr/art)에서 동시 선착 순 무료배부 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수영협회 도민체전 황금물결

금 5개, 동 1개 창단 이래 최고 성적

김제시수영협회(회장 조남산) 임원들과 생활체육인의 화합과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의 결실이 고창군에서 개최된 제56회 전북도민체전에서 황금물결로 빛났다.

김제시수영협회 창단 이래, 금메달 5개, 동메달 1개로 일반부 5위 성적을 거뒀 김제시의 자존심은 물론 지역 체육인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고 있다.

이번 도민체전에 출전한 이수영 선수는 평형50m와 100m에서 금메달을 거머쥐는 기량을 보였고, 자유형100m에 출전한 김아연 선수도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여자일반부 혼계영200m에 참가한 김아연·김선미·임수영·최지영 선수는 금메달 합작품을 만들 냈고, 남자 일반부 최태룡선수도 개인혼영 200m 동메달을 보태 도민체전 발판으로 김제시수영발전에 청신호가 켜졌다.

체육청소년수련관에 마련된 수영

장은 일350명 이상 시민들과 동호인들이 이용하고 있어 수영인 저변 확대에 한몫을 하고 있다.

이번 성적은 20년 이상 노후된 김제시수영장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영협회 임원들과 지도자 동호인 선수들의 응원과 땀으로 빈틈 없이 준비한 결실로 일궈내 더 큰 의미를 더 하고 있다.

김제시수영협회는 김제시장기수영대회, 월례회, 수영인의 밤, 자체 평가 등을 통해 동호인들의 결속은 물론 지역사회 화합과 시정에도 다각적인 참여와 관심으로 김제시 생활체육의 밝은 미래를 열어나가고 있다.

조남산 수영협회장은 "도민체전에 지원과 협조를 보내준 김제시와 고장의 명예를 걸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해준 선수단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5년간 협회장을 하면서 가장 기쁜 순간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이 양파 품종 및 부직포 활용 시범포 순회평가를 실시했다.

완주군 올해 양파 작황 양호

농업인 연구회원 시범포 순회평가

완주군이 양파 품종 및 부직포 활용 시범포 순회평가를 갖고,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완주군 농업기술센터는 최근 고산·화산·영천면 양파 시범포장에서 완주 양파농업인 연구회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파 품종 및 부직포 활용 시범포 순회평가를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순회평가는 금년도 양파 품종별 생육 상황과 상품성을 분석하고, 가을철 양파 정식과 부직포 피복시기에 따른 생육 상황을 점검 평가하

고자 마련됐다.

이번 평가에서는 지역적응 우량 품종으로 재배했을 때 상품성 증가와 농약 등 농자재 사용량 감소로 농가의 경영비를 줄일 수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또한, 늦게 정식한 포장도 부직포를 피복하면 추운 겨울철에 안정된 월동이 가능하고 불철 생육이 일찍 시작돼 고품질의 양파 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됐다. 평가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올해 양파 작황이 양호해 평년대비 수량이 10~15% 증가하고, 출하 시기도 일주일가량 빨라 질 수 있을 것으로 의견을 교환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Advertisement for '착한신고' (Good Reporting) campaign. It features a woman covering her face in distress, with hands pointing towards her. The text promotes reporting child abuse to 112, highlighting that reporting is a heroic act. It lists signs of child abuse and provides contact information for reporting.